

# 與 공부모임 3개월 만에 재개... 몸 푸는 차기 당권주자들

나경원 부위원장, 연사 나서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참석  
정치 현안 발언보다 강연 집중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4일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새미래)를 3개월 만에 다시 열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부 모임 연사로 나섰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자리에 참석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당권 경쟁도 다시 불붙은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 미래’라는 주제로 나 부위원장 초청 강연을 열었다. 강연에 앞서 김 의원은 나 부위원장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 활약한 때를 언급한 뒤 “특유의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온 주역”이라며 추켜세웠다.

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만큼 ‘김기현·나경원 연대설’을 고려한 듯 “대선이 끝났는데도 야당이 하나도 승복을 안 하는 것 같다. 힘든 상황이지만 진짜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총선 승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사진 왼쪽) 의원이 24일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3개월 만에 다시 열었다. 사진은 새미래 모임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 모습.

/김기현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리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현안 발언은 짧게 했고, 나 부위원장은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로서 주제 관련 강연에 집중했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 부위원장은 경쟁자인 김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 연대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적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나 부위원장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구와 기후에 있어 전

도사라는 마음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모레 국회의장도 뵈기로 했다. 야당은 물론, 누가 불러도 인구와 기후(관련 강연에) 기회를 주면 달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한 데 대한 연대설 해설을 경계한 모습이었다.

나 부위원장은 당권 경쟁 주자인 김

의원과 연대설을 두고도 “연대가 아니라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나 부위원장이 갖고 왔던 많은 정책적 어젠다, 국민의 힘이 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공감대를 이룬 사이”라며 “앞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보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 김 의원, 나 부위원장과 함께 안 의원도 함께 하면서 정치권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3개월 만에 열린 김 의원 공부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절반에 가까운 50명이 함께 했다. 공부 모임에 함께 한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에서 “김기현 파이팅, 나경원 파이팅, 안철수 파이팅” 등 구호도 외쳤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것은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다가왔고, 당 조직 정비도 본격화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 뒷받침 등에 집중해야 했고 당 조직 정비가 끝나야 전당대회 준비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 23일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지역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다음 주에 현황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강특위는 앞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이 없는 69곳 가운데 66곳에 대해 재공고를 했다. 지난 17~18일 지원 결과, 기존 접수 인원까지 포함해 총 303명이 참여했다. 조강특위는 지역 현안 청취를 마무리한 뒤 지원한 인사들에 대한 심사, 면접 등으로 공식 인 위원장 인사도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당무감사위원회 인선도 마무리했다. 이날 비대위는 내정된 이성호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무감사위 부위원장은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어 비공개 인사 4인을 당무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비대위가 당무감사위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정기 감사 일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는 감사 실시 60일 전에 계획서를 공표해야 한다. 통상 감사 기간이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1월 중 공고되면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이태원 국조 특위 파행... 大檢 포함 두고 이견

국민의힘, 회의장 나타나지 않아  
민주당 ‘輿, 하루 만에 입장 번복’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여야 위원 참석 하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검찰청(대검) 조사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특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 앞에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찌 야당 원내

대표끼리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검을 빼달라고 한다. 이것이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검이 조사기관에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일부와 대검찰청이 포

함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교흥 의원은 “계속 간사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어찌까지 야당 원내대표가 다 합의를 해서 우리가 법무부도 빼주고, 경호처도 빼주고 다 뺐다. 그런데 대검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와 경찰의 마약수사의 상황이 다른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지난달 26일 당정회도 했다. 그래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 대검찰청은 하등 관계 없는 데 왜 넣느냐고 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되면 야3당이 합의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인 이상호 민주당 의원도 취재진을 만나 “생중계로 합의 사항을 읽었고 특히 기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도 안지나 대표도 아닌 평의원들이 압박해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합의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해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황당해한다고 전하며 “과거 검찰청법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하느냐고. 본인은 다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조 특위가 돌연 연기되면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조사 기간과 관련해,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 적극 지원”

尹 대통령, ‘방산수출 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등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 참관을 비롯해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나라온), FA-50, KUH(한국형 기동헬기), LAH(소형무장 헬기) 등 항공기 현황 보고를 받은 후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 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

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시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

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방산 수출이 원전·건설 인

프라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한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 지원, 부품 국산화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 강화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기업 역시 정부, 군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